

나주시 '푸드 업사이클링' 110조원 시장 선점 나섰다

전남대 푸드테크학과와 산학연관 전문가 초청 '나주푸드 포럼' 윤병태 시장 "푸드테크 산업 육성 통해 글로벌 시장 선점할 것"

나주시가 오는 2030년께 전세계적으로 110조원 규모까지 고성장이 기대되는 '푸드업사이클링'(Food Upcycling) 시장 선점을 위해 관련 산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나주시는 최근 전남대학교 푸드테크학과와 공동으로 동산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2024 나주푸드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나주시, 나주농업진흥재단 주최로 국내외 푸드 업사이클링 산학연관 전문가 초청 기조연설, 세션 발표, (사)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광주

전남지회 발대식 등 총 3부에 걸쳐 진행됐다. 포럼 주제인 '푸드 업사이클링'은 농수축산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이나 버려지는 식품 부위를 사용해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다. 맥주 제조의 부산물인 맥주박을 가공한 아식빵, 스낵 등을 제조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한 친환경 대체식품 개발', '푸드 업사이클링 민간 인증제도 소개', '소비시장 활성화 전략', '푸드테크 푸드 업사이클링 정부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나주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푸드테크연구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이 센터는 나주 일반산단단지 내 3417㎡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1612㎡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센터가 가동되면 푸드테크 기업의 시제품 개발과 기술 실증 등을 본격 지원하게 된다. 포럼에 참석한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푸드테크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지역 농축산물과 첨단 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를 선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주최로 지난 25일 동산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2024 나주푸드포럼'이 열렸다. (나주시 제공)

함평군, 생활인구 확대에 지역소멸 위기 극복한다

사계절 축제 관광객 유치 총력 생활인구 맞춤형 정책도 확대

정부가 인구의 이동과 체류를 고려한 '생활인구' 제도를 도입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키로 하면서 함평군이 생활인구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그동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각종 정부 공모사업과 경제성 조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만큼 생활인구 확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도입한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와 체류 인구(통근·통학·관광 등을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 외국인을 포함하는 인구개념이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으로 인구를 정의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7월과 10월에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전체에 대한 분기별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함평군의 생활인구는 1분기에만 46만명이 집계됐으며, 4·5월 나비축제와 열린 2분기는 65만명으로, 이 중 체류 인구만해도 주민등록인구 9만명의 6배가 넘는 약 56만명으로 집계됐다.



함평나비축제 행사장의 축산 체험 프로그램.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체류 인구 확대를 위해 축제를 다양화하고 관광객 방문을 증가시킬 계획이다. 함평군은 봄 나비축제와 여름 엑스포공원 물놀이장, 가을 국향대전, 겨울 겨울밤 빛축제 등 사계절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만큼 함평군은 올해 초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족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공개 채용해 행정 서비스를 다양화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청년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연평균 900여 가구에 달하는 귀농 귀촌 가구에도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국가 총인구 감소 속에서도 지역간 인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인구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생활인구는 각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군, 월 임대료 1만원 '청년하우스' 문 열어

구직 청년 취·창업 지원 공간

화순군이 구직 중인 청년들을 위한 '화순 청년하우스'를 문 열었다. 청년하우스는 1층에 공용공간인 스터디카페가 있고, 2·3층에는 성별이 분리된 주거공간, 4층에는 뚝방 모양의 취·창업 지원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입주 대상은 화순군 거주자 또는 거주하고자 하는 구직자 중 18세에서 49세 청년들이며, 조건은 계약기간 1년에 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1만 원이다. 입주 예정 인원은 여성 7명, 남성 10명이며, 1인실 7호, 2인실 5호 등 총 12호실이다. 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은 12월 공고 예정이

며, 공고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발한다. 청년하우스에 거주하게 될 청년들은 화순군 청년지원 프로그램인 취·창업 단기 특강,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면접 장차 무료 대여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취·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힘든 점은 심리적 압박감"이라며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하우스를 개소한 만큼,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 청년하우스는 2021년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 5월 착공, 올해 10월 완공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꿈드림 활동 '마음속속 립밥 만들기'.

장흥군학교밖청소년센터 꿈드림 동아리 2월부터 이어온 체험·나눔 활동 마무리

자립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장흥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뽕그레' 꿈드림 동아리는 올해 2월부터 이어 온 베이킹, 모기퇴치제·립밥 만들기 체험과 나눔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뽕그레는 '김제동과 어깨동무' 나눔 공모사업에 지난 4월 선정돼 지원받은 베이킹 재료를 활용해 다양한 나눔활동을 했다. 꿈드림 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증진하고,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과 전문성 개발, 사회적 교류에도

움이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꿈드림에서는 검정고시 대비반, 취업자립 지원·상담, 체험활동, 수학여행, 급식지원, 진로진학, 건강검진, 학업·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참여수당 지급, 학업중단수려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9·24세)은 누구나 무료로 학교 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장흥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센터(061-863-1318)에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강진 벼멸구 피해농가에 재난지원금

1031ha 벼 재배면적 11% 피해 1492 농가에 9억9000만원 지급

강진군이 벼멸구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 9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강진군 벼멸구 피해 면적은 1031ha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11.4%다. 9월 집중호우와 피해가 중첩되면서 피해가 컸다. 올해 벼멸구 피해가 극심한 이유는 평년에 비해 많은 양의 벼멸구가 중국으로부터 날아왔고, 특히 고온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2·3세대를 거치며 밀도가 급격하게 증가해 피해를 키

웠다. 군은 올해 벼멸구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지난 10월 8일부터 2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피해접수와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강진군은 군비 2억 4000만원을 포함해 3억 7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요구했으며, 벼멸구 피해농가 1492호에 재난지원금 9억 9000만원을 12월 중순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군 강진군수는 "벼멸구 피해가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된 만큼 복구비를 지원받아 조금이나마 농가의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복지부 '최우수상'

신속대응 윈스톱 협력체계 호평

나주시가 촘촘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성과를 인정받았다. 나주시는 보건복지부의 2024년 지역복지 사업 평가에서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지난 2021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국 16곳 시도, 사군구 지자체 229곳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지원', '대응체계 내실화',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해 성과가 우수한 시도 2곳, 사군·구 6곳을 선정해 시상했다. 나주시는 '나주품 에(愛)서 도담도담'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관계기관 간 윈스톱 협력체계' 구축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나주시는 올 한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윤병태(왼쪽 세 번째) 나주시장과 나주시 가족아동과 직원들이 아동학대 대응 부문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수상을 자축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지원을 위해 '지역안전망 우리 마을 아이 지킴이 단(20곳·262명) 운영', '피해 아동 심리검사·의료비 지원', '면접 교섭' 등을 역점 적으로 추진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앞으로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학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다져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가수 김용임 홍보대사 위촉

지역특산물·축제 등 홍보 활동

가수 김용임이 화순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지난 26일 열린 위촉식에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공정식 작곡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적벽 가는 길' 뮤직비디오가 상영됐다. 김용임은 지난 1984년 노래 '목련'으로 신인가 오제 장려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했다. 이후 대한민국 대표 여성 트로트 가수로 4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 대표곡으로 '적벽 가는 길', '내사랑 그대여', '사랑의 밭줄', '부초같은 인생' 등이 있다.

화순군의 대표 홍보곡인 '적벽 가는 길'은 지난 2023년 노랫말 공모에서 당선된 가사에 화순 출신 공정식 작곡가가 곡을 붙여 완성됐다. 고향 화순에 대한 그리움과 이루지 못한 사랑의 추억을 담은 노래로 화순8경 중에 하나인 적벽을 소재로 했다. 김용임은 앞으로 지역 특산물 홍보와 광고, 지역축제 홍보, 기업 투자유치 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김승오 화순군 홍보소통담당관은 "김용임 홍보대사가 전국 어디서든 화순의 멋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려 화순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지난 26일 구복규(왼쪽 첫번째) 화순군수와 오형열 화순군의회 의장, 공정식 작곡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수 김용임(왼쪽 두번째)을 홍보대사 위촉식이 열렸다. (화순군 제공)